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1월 2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(금) 14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1. 1(금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
담 당	박재영 과장(044-203-4020)	담 당 자	이주노 사무관(044-203-4022)

수출과 투자 분위기 반전에 모든 정책역량 총 동원

◇ **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원, 내년 수출계약기반보증 2천억원,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특화 지원 신설, 중소기업전용금융 8.2조원 지원 등**

◇ **3대 미래 핵심산업 350조 규모 투자*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**

*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자동차

◇ **「알키미스트 프로젝트」 2조원 지원 등 성과 중심으로 R&D 지원체계 개편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**4분기 무역금융**으로 **60조원**을 **지원**하고, **연말까지 3,524개 기업**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, 무역사절단 등 **해외마케팅 84회**를 **집중 지원**하기로 함

○ 아울러 **기업의 대규모 투자**를 **최우선적으로 지원**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**3대 미래 핵심 산업**을 중심으로 **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**를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,

○ **도전적·혁신적 R&D**를 지원하는 **「알키미스트 프로젝트」**에 **2조원 이상**을 **지원**하는 등 **성과 창출 중심**으로 **R&D 지원 체계**를 **전면 개편**하기로 함

□ 산업부는 11.1(금) 성윤모 장관 주재로 **「수출상황 점검회의」**를 개최하고, **수출 플러스 전환**을 위해 **수출지원기관**과 **업종별 단체**와 함께 **모든 역량**을 **집중 지원**하기로 하였으며,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1 우리 수출 현황 분석

□ 우리 수출은 최근 미·중 무역분쟁, 일본 수출규제 등 **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**이 **심화**되는 가운데,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, 유가 하락 등 **가격 변동성의 영향**에 따라,

○ 2015년~2016년 사상 최장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이어,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**11개월째 감소세**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

□ 그러나 **11월부터 우리 수출이 점차 개선**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○ **수출 물량은 줄지 않고 견조하게 증가**(전년동기대비 +0.5%)하고 있으며, **전국 무역항의 수출입 물동량**도 **10억 6,203만** 톤으로 **전년보다 2% 이상 증가**하였으며,

* 수출입 물동량(만톤, 1~9월 누적) : ('17) 97,971 → ('18) 104,053 → ('19) 106,203

- 최근 **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**가 **역대 최고치를 갱신**한 가운데, **반도체 수출 물량**도 **4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**하고 있어 향후 실적개선 전망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상황임

○ 바이오·헬스(8.6%), 이차전지(6.8%), 자동차(7.9%) 등 **주력품목**과 **신수출 성장동력**이 고르게 선전하는 가운데, 베트남·인도·CIS 등 **신남방·신북방 수출**이 우리 수출 활력 회복을 견인하고 있음

○ 또한, 미·중간 스몰딜 가능성,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 **대외 불확실성 완화**와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**반도체 가격 회복**, **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*** 등이 뒷받침 될 경우,

* '18년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로 '19년 대비 건조량 증가 전망
['18년 수주량 : (1위)한국 13.1백만CGT, (2위)중국 10.4백만CGT, (3위)일본 7.2백만CGT]

- **내년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**될 것으로 **전망**하고 있음

□ 아울러 최근 **수출 중소기업**이 **1,000개사 이상 증가**했으며, **신흥시장 수출비중**도 **중국 수출비중과 유사한 수준**으로 **증가**하여 **수출시장 다변화***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, **산업·무역 부분 전반**에서 **좋은 성과**를 보이고 있어 **내년 수출 플러스 전망**을 **더욱 밝게 해주고 있음**

* 수출비중 : (신남방+신북방) 20.8% → 23.1% / (중국) 26.8% → 24.5%

○ **(산업체질 강화) 세계 최초 도심 내 수소충전소** 설치 등 선제적 대응으로 **전기·수소차 보급이 7배 이상 대폭 확대**되었고, **친환경차 수출**이 **80% 이상 성장**하였으며,

* '19.9월 친환경차 수출 : 24,808대(전년 동원대비 82.7% 증가)

- **전통의 조선 산업**도 **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** 등을 **중심으로 세계 1위를 탈환**하는 가운데 **자율운항선박 개발** 등 **친환경·고도화**의 방향으로 **빠르게 변화**하고 있음

○ **(수출규제)** 뿐만 아니라, 정부는 **일본 수입에 의존**하던 **폴리이미드 필름 등 10건**에 대해 **수입처 다변화 지원**이 지속되고 있고,

- **수산물, 공기압 밸브 등 WTO 분쟁**에서도 **좋은 성과**를 거두며 **통상·무역분쟁**에도 **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음**

2 향후 정책 방향

1 수출 추세반전을 위한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

□ 산업부는 **4분기**에만 **무역금융 60조원**을 지원하고,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에서 수요가 큰 **「수출계약 기반 특별 보증」** 지원을 **올해 500억원에서 2020년 2,000억원으로 대폭 확대**할 계획임

○ 아울러, **연말까지**(11~12월) 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*에 대한 **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**를 **기존 2배에서 2.5배로 확대****하고,

* (주력시장) 북미, 중국 · 홍콩, EU 등 / (신흥시장) 신남방 · 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
** 한도확대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7,485개사, 수출효과는 1.4조원 추정

○ 당초 **금년 연말에 종료 예정**이었던 **주력 및 전략신흥시장*** **진출기업**에 대한 **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**(10%)도 내년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해 **2020년 1/4분기까지 연장**** 시행하기로 함

* 러시아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인도, 베트남 등 신흥시장 중 주요 수출국
** 일괄증액으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1,809개사, 수출효과는 0.1조원 추정(352개사)

□ 또한, 중동 등 **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**으로 **1조원 규모 「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」**을 **신설**해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,

○ **「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」**을 **8.2조원 규모**로 **보강**하는 한편, **「해외 전시회·사절단 지원」**은 **올해보다 10% 이상** 늘려 **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**을 **촉진**할 계획임

○ 아울러 **3,000억원 규모**의 **「수입대체 특별보증」** 신설, **「소재·부품·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」** 신설 등을 통해 **우리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을 중심**으로 **글로벌 공급망**을 **주도적으로 구축**하고,

○ 특히, **11월**에 열리는 **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**를 계기로 우리 **중소기업**들의 **신남방 지역 진출**이 **더욱 가속화** 될 수 있도록 **다양한 무역-투자협력 프로그램**을 **가동**할 예정임

2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최우선으로 지원

□ 현재 산업부 주도로 **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**차 등 **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**으로 **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**하고 있으며, 이러한 계획을 **양질의 일자리와 성장**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중임

○ 아울러, **「민·관 합동 투자지원단」**을 중심으로 입지·인력·자금·규제 완화 등 **투자애로는 신속하게 해결**하고, **기술개발과 설비투자**에 대한 **세제 혜택도 강화**해 **추가 투자도 적극 촉진**할 계획임

□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넘어 **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**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·헬스, 수소 경제 등에 **향후 10년간 8조 4천억원 규모의 R&D 투자**를 **추진**하고,

○ **충전소 확충,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** 등 **인프라 보강**과 함께, **공공수요 창출, 대규모 실증, 표준 선점** 등을 통해 **민간의 투자와 혁신**을 **뒷받침**할 계획임

3 수출-투자 분위기 반전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과감히 재편

□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의 분위기 반전을 넘어 **실제 성과**를 낼 수 있도록 **정책 지원**을 **과감하게 개편**할 계획임

○ 근본적 산업 혁신에 필요한 **「알키미스트 프로젝트」**에 **2조원 이상***을 **투입**해 **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**할 계획이며,

* 과기부와 공동으로 예타(2.6조원 규모)를 진행 중(기술성평가 통과)

○ **규제샌드박스**는 자율주행버스, 로봇 배송 등 **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**를 중심으로 **확대**해 나갈 예정임

□ 또한, 스마트 산단, 경제자유구역 등 **지역 성장 인프라**를 **보강**하는 한편, **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**도 **새롭게 개편**하여 **일자리와 성장의 혜택**을 **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**할 계획임

□ 성윤모 장관은 "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**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, 중요한 성과**는 **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**은 **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**할 것"이라고 하면서,

○ "장관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, **「서포트 타워」**(support tower)로서의 **산업부 역할**을 되새기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**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**은 **산업부가 앞장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**할 것"이라고 강조하였음

첨부 : 「수출상황 점검회의」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이주노 사무관(☎ 044-203-40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수출상황 점검회의」 개요

□ 개최 배경

○ **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**(10.17) **후속**으로 민관합동 **수출 상황 점검**

○ 11월 이후 **수출 개선**이 **전망**되는 상황에서 **수출총력지원체계 재정비**

□ 회의 개요

○ **일시 : '19.11.1(금) 14:00~15:30**

○ **장소 :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**(서울 종로구)

○ **참석자 : 산업부 장관 주재**

- **(산업부)** 무역투자실장, 무역정책관, 소재부품산업정책관, 제조산업정책관 등

- **(민간) 수출지원기관**(3개)* 및 **업종별 단체**(8개)** 기관장

* 한국무역협회(부회장), 한국무역보험공사(사장)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부사장)

** 1월~9월 기준, 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(**선박, 바이오헬스, 자동차, 이차전지**), 수출 5% 이상 감소 업종 중 주력업종(**반도체, 석유화학, 석유제품, 철강**)

□ 논의사항

❶ **최근 수출 동향* 및 전망** (산업부)

* 신산업·주력산업 중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증가, 수출시장 다변화 등

❷ **업종별 수출전망 및 대응방안** (업종별 단체)

* '19.말 수출 전망, '20년 업황 전망 및 수출확대 방안

□ 진행계획

시 간	세부 내용	비 고
14:00 ~ 14:03('03)	모두 말씀	**산업부 장관**
14:03 ~ 14:08('05)	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	산업부 무역정책관
14:08 ~ 15:28('80)	업종별 수출전망 및 대응방안	업종별 단체
15:28 ~ 15:30('02)	마무리 말씀	**산업부 장관**